기업윤리 브리프스 12호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기업윤리" 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Monthly Business Ethics Briefs

전문가 칼럼

윤리경영 실천의 진정성이 아쉬웠던 한 해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남 재 우 이사장

올 한 해를 회고해 보면 어느 때보다도 갑의 횡포, 을의 눈물, 총체적 비리구조, 도덕적 해이와 같은 용어가 많이 오르내린 것으로 생각된다. 공직자에서부터 일반 기업구성원에 이르기까지 불공정 · 비윤리적 행위에 연루된 사건이 빈번하게 사회적 이슈가 되어 마음을 답답하게 하였다.

우리나라는 세계 15위의 경제대국 반열에 올라있으나, 청렴도는 그렇지 못하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평가하는 부패인식지수(CPI)가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세계 45위이다. 부정비리가 우리 사회의 명실공한 선진국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99%의 공무원이 깨끗해도 1%가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국민은 공직사회 전반을 불신하게 된다" 고 지적한 바 있다. 부정비리는 규모나 빈도와 상관없이 신뢰를 떨어뜨리고 갈등을 촉발하는 주된 요인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같은 신뢰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부정비리 척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이다.

내년에는 특히 국민적 불신을 폭넓게 가져온 원전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먼저 정부, 공공기관을 필두로 반부패, 비리척결을 위한 여러 노력과 함께 사회적으로도 바르게 살기, 청렴운동이 확산되기를 기대해 본다.

글로벌 불황, 기업리더십 약화, 유동성 어려움이라는 이중 삼중의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도 윤리경영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유인제도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좋다.

아울러 기업들은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윤리경영은 기업의 경쟁력이자 위기극복을 위한 경영시스템이라는 점을 확고히 하여야 한다. 윤리경영은 기업 내부의 부정비리를 스스로 정화할 뿐 아니라, 조직구성원들의 신뢰확보와 업무몰입도를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둘째, 윤리경영의 틀 안에서 기업핵심역량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 IT기술의 진화와 더불어 소비자들의 정보력도 동반상승하고 있다. 어떤 기업이 윤리적인지, 어떤 제품이 경쟁력이 있는지는 소비자들이 더 잘 아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핵심가치에 집중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오래도록 사랑받는 기업이 될 수 있다.

셋째, 나홀로가 아닌, 모두의 힘을 모아 함께 발전하는 기업간 협력과 상생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대기업,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솔선수범하고, 협력업체들도 함께 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을 통해 고객과 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굳이 빌게이츠의 창조적 자본주의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사회에 기반을 두고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익과 사회공헌이 시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사업을 영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윤리경영교육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조직의 행동과 결과에 대한 평가와 윤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공유는 기업구성원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고 결합시킬 수 있는 교육에서 기능이 발휘된다. 기업에서 윤리적 가치관을 확립하여 실천한다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경영진의 솔선수범과 역할이 더없이 중요하다. 올해 몇몇 기업의 부정사례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 발행일 2013년 12월 1일(매월발행, 통권12호, 비매품) | 발행인 이성보 |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 주소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민간협력담당관실 ▸ 구독신청 02-360-2774

올해의 윤리경영 키워드 BEST 3

키워드 1 **상생**

2013년은 많은 기업들이 '상생(相生)'을 향해 뛰었던 해였다. 아마존은 오프라인 서점과의 제휴를 통해 새로운 상생모델을 제시하였고, 이외에도 서로가 상생기업으로 윈윈해가는 모범기업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유통업계

기업형슈퍼마켓업계와 중소유통단체는 중소슈퍼의 가격경쟁력과 제품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에브리데이리테일과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간 공동구매 · 물류 · 마케팅에 대한 상생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현대미포조선

(주)현대미포조선이 협력회사 300곳을 대상으로 동반성장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상생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대미포조선 관계자는 "협력사와 상생하지 않으면 모기업이 글로벌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주)현대미포조선은 2012년에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를 받았다.

키워드 2 **갑을문화**

2013년은 어느 해보다 갑을관계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편의점 밀어내기 사건을 비롯하여 화장품업계의 불공정거래 등 갑을관계 관련 사건이 이슈화되었으며, 이런 비윤리적인 사건들은 사건 이후에 재판을 받기도 하였다.

유통업계의 갑을논란

최근 유통업계에는 '밀어내기'가 많이 발생하여 개선책이 추진되고 있다. 실태를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유제품 업계의 대리점에 대한 각종 '밀어내기'(강제할당, 구입강제 등)가 금지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화장품업계의 불공정거래

한 화장품 판매 대리점주가 영업팀장으로부터 10년을 키워온 대리점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대리점을 포기하지 않으면 물건도 안 나가고, 인근에 영업장을 또 내겠다며 협박했다. 피해업주 30여 명은 현재 그 화장품업계의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기로 하였다.

키워드 3 **불법행위**

불법행위들에 대한 조치로 보건복지부에서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만들었으며, 담합과 관련하여 '리니언시 담합자진신고자감면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제약업계, 식품업계, 통신업계, 금융업계 등에서 리베이트 및 담합 등과 같은 불법행위 사건이 연이어 몰아쳐 재판을 받고 있다.

제약업계에 몰아친 리베이트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서 불구속 및 약식 기소된 의사와 병원 이사장, 사무장 등 124명 중 혐의를 인정한 사람이 총 22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한 중견 제약회사는 불법 리베이트 혐의가 적발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9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20일, 중견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달라고 청탁하며 명품 지갑과 골프채 등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식품업계 담합

9년간 식품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천억 여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할 처지에 놓인 식품업계들이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 업체들이 총 6차례에 걸쳐 가격을 담합했다며 총 1,3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최근 이 식품업계는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담합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한 바 있다.

최근 국내외 동향

:: 국내 윤리경영 동향

UNGC한국협회 '글로벌 CSR 컨퍼런스' 개최

11월 12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Global CSR Conference 2013'가 열렸다.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와 윤리준법경영인학회(ECOA)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아시아에서 기업의 도전'을 주제로 CSR 전문가들과 국내외 정부, 유엔, 학계, 기업의 대표 및 실무진들이 참석해 기업의 위기관리 증진 및 지속가능경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의하였다.

"기업윤리, 국내만의 이슈 아냐.. 해외협력사 관리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해외 기업윤리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방안과 내년도 기업윤리 전략을 모색하는 '기업윤리학교 ABC'를 11월 19일 전경련 신축회관 컨퍼런스센터(1층)에서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해외 기업윤리 트렌드 점검'과 '2014년 기업윤리 전략' 두 세션으로 나뉘어, 해외 기업윤리 트렌드와 함께 ISO 26000 등 글로벌 규범의 활용 방법을 알아보고, 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의 모범사례를 공유하였다.

KOICA 원조 투명성, 세계 67개 기관 중 30위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원조 투명성 지수가 전체 67개 공여기관 중 30위를 차지하였다. 10월 30일, 공적개발원조(ODA) 감시 시민단체인 ODA워치에 따르면 KOICA는 원조 투명성 증진을 위한 국제 캠페인 조직 PWYF(Publish What You Fund)가 최근 발표한 원조 투명성 지수에서 이 같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지난해 41위보다는 상승한 것이지만 여전히 투명성이 낮은 하위 그룹에 속한 것이라고 ODA워치는 설명하였다.

☞ 3면에서 계속됩니다.

:: 해외 윤리경영 동향

'부패 고발' 중국 기자, 국제투명성기구 첫 청렴상

중국 고위 관리의 비리를 폭로한 중국 언론인이 반부패 운동을 펼치고 있는 민간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I)가 수여하는 올해의 청렴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11월 10일 BBC 중문망에 따르면 국제투명성기구는 지난 8일 중국 경제잡지 차이징(財經)의 부편집장인 뤄창핑(羅昌平)을 청렴상 수상자로 발표하였다. 어려운 중국 언론 환경 속에서도 개인 블로그를 통해 고위 관리의 부패를 고발한 그의 용기를 높이 평가하였다.

아마존 '수익 · 상생' 확대… 우체국 통해 일요배달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은 11월 11일 아마존이 경영난에 허덕이는 미국 우체국과 손잡고 '일요일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보도하였다. 현재 미국 우체국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주6일 제를 시행하고 있다. 양측의 제휴로 아마존의 우수고객들은 각종 구매 물품을 구매한 뒤 2일내에 받아볼 수 있게 된다. 현지 언론은 우체국과 손잡은 아마존의 일요 서비스 시행을 '보기 드문 상생'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우수 윤리기업이 되기 위한 조건

최근 윤리경영을 경영의 근본으로 놓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모범 사례가 되는 기업들을 알아보자.

:: 상생

최근 윤리경영은 상생경영을 통해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우수 윤리기업이 되기 위해 '상생'은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2013년 한해 동안 상생이 화두가 되었고, 많은 기업들이 협력사 등과의 상생 발전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 및 금융지원, 중소기업과의 협력연구 및 시장공동 진출, 역량강화 지원

현대모비스

매년 정기총회를 통해 회사의 사업 계획과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 협력업체에 필요한 해외 선진업체 동향과 세계 부품시장 추이 같은 고급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

:: 투명

'윤리'하면 떠오르는 단어 중의 하나가 '투명'이다. 2013년은 국내 · 외적으로 투명경영을 강조한 해였다. 기업들은 기업 내부의 회계통제 시스템과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해지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라이온컴텍

내부 회계통제시스템 제도를 구축해 투명경영을 실천, 지역 사회복지 기금으로 매년 수천만 원의 성금을 기부

동서발전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와 주주에 대한 성실한 정보공개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윤리경영과 투명경영 기반을 구축, 이를 조직문화로 정착

:: 윤리적 조직문화 정착

윤리경영을 추진함에 있어 임직원들의 무관심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임직원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윤리적인 기업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e-감사 시스템, 청탁등록시스템, 부패 위험 조기경보시스템, 익명 내부 신고 제도 '유리알에게', 청렴 옴브즈만 제도, 윤리 · 청렴 캠페인 시스템 등을 새로 개발해 운영 중

우체국금융개발원

임직원의 내부 소통 강화 및 청렴문화 조성, 반부패 추진 인프라의 실효성 강화,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내부 규정의 투명성 강화, 기관장 및 고위직의 역할 강화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 특히 '반부패 척결'에 초점을 맞춤

:: 사회공헌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도 진화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단순 기부 대신에 지역과 계층, 업종 특성에 맞춰 적극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이랜드

중국에서의 순이익의 10%를 사회에 환원, 15개 지역의 빈곤가정 고등학생 1만 여명에게 연간 157억원을 장학금으로 지원, 재난지역 피해가정에게 긴급구호키트 13만개를 지원, 나병원, 양로원, 고아원 및 무상 헌혈 등 직원자원봉사를 진행

유디치과

서민들에게 무상으로 치과치료, 독거어르신들에게 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자원봉사를 진행

결어

사례로 제시된 기업들은 상생, 투명, 윤리적 조직문화를 정착, 사회공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윤리적 조직문화를 정착하고 투명하게 경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 혼자만이 아니라 상생하고 함께 성장하며 사회에도 공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앞서 제시된 이러한 요소들은 윤리경영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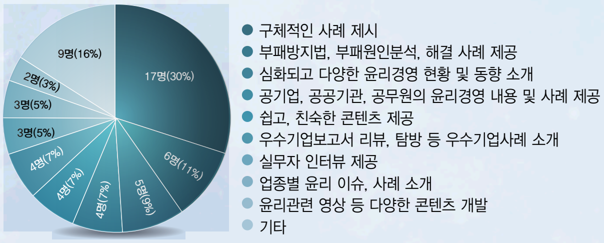
윤리경영 ROLLING PAPER

이번 호 브리프스에서는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기업윤리 브리프스에 대한 희망사항과 바라는 점, 윤리경영을 추진하는데 있어 어려웠던 점, 정부에 바라는 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코너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항상 노력하는 기업윤리 브리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윤리 브리프스에 바라는 점

올해 기업윤리 브리프스에서는 구독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브리스프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2013년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총 5일 동안 약 200여명의 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설문대상 중 총 57명의 구독자가 기업윤리 브리프스에 바라는 점에 대해 의견을 주었다.



먼저, 최신 사례, 국내외 사례 등 구체적인 사례 제시에 대한 니즈가 30%(17명)로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반부패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함에 따라 부패방지법 및 부패 원인 분석, 해결 사례에 대한 요구가 11%(6명)로 다음을 이었다. 이와 더불어 심도 있고, 다양한 윤리경영 현황 및 동향 소개에 대한 의견이 9%(5명)로 많았다.

제작진은 이를 통해 브리프스의 구독자들이 브리프스를 통해 윤리경영 사례와 동향 및 현황에 대한 소개를 알고 싶어 한다는 것과, 부패방지법 및 부패관련이 윤리경영에 있어 가장 궁금해 하는 분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금융소비자 보호 콘텐츠 제공, 사회적 기업 소개, 직무윤리 관련 내용 소개, 협력사 관련 내용 소개 등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윤리경영을 추진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

또한, 브리프스에서는 기업의 윤리경영 실무자가 윤리경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이며, 정부에 바라는 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보았다.

그 결과, 약 10명의 윤리경영 실무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

1. 윤리경영과 관련하여 어려운 점, 혹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현재 윤리경영은 사회공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일반화되어 청렴/윤리에 초점을 맞춘 교육 자료나 서적, 전문가는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직원 대상 교육이나 간담회 진행시 콘텐츠 구성에 어려움이 있어요.

▶윤리경영 또는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관련 성과 평가시 기관들의 서열화를 지양하고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경우 인증하는 방향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윤리경영과 지속가능경영 사이의 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직구성, 개념, 역할 등 구분이 어렵습니다.

▶지속가능한 윤리경영과 소통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 기업은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고, 각종 협회등 관련 기관에서도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교육등 이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존 윤리경영을 추진하던 기업의 입장에서는 관련 조직 및 업무 조정 혼선이 있습니다. 윤리경영, 지속가능경영, 사회공헌 활동 등을 한 조직에서 어떻게 조정할 지에 대한 가이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의 CSR에 대한 지원이 부족합니다.

▶오래된 관습과 직원들의 의식 전환이 어렵습니다. 또한 경영진의 솔선수범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윤리경영과 관련하여 정부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공공기관 윤리경영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보다 많은 인센티브와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에서도 윤리경영 및 CSR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운영과 같이 윤리경영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며 특히 공기업(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의 의지에 따라 기관장의 의지가 결정되는 만큼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됩니다. 또한, 공기업의 청렴수준 제고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발굴이 필요하며, 우수성과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합니다.

▶윤리경영은 지속 추구되어야 할 경영가치이므로 단기적 성과측정보다는 중장기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업과 실무자의 역량 강화 및 동기부여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고 지속되면 좋겠지요.

▶윤리경영은 제도와 규제만으로 이뤄질 수 없습니다.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나의 기업문화로 정립되어야 하며, 정부의 부패척결에 대한 명확한 의지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윤리문화 정착이 필요합니다.

▶정부측면에서 윤리경영 표준화 MODEL이나 우수 기업 사례 등을 발굴 전파하는 역할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윤리경영을 강조하는 정책 추진과 정부 관료의 부정부패 방지에 대해 솔선수범을 해주세요.

▶공무원이 청렴하지 않으면, 사기업에서 윤리경영 활동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제보자 보호제도 보완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개인과 달리 회사는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제보가 어렵습니다.

▶기업의 부패를 가리기 위한 윤리경영이 되지 않도록 감독해주세요.

▶CSR과 CSV에 대한 정부차원의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리경영 One Point Lesson

Q&A

기업윤리 브리프스에서는 '윤리경영 One Point Lesson'을 통해 윤리경영업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Q 최근 기업들의 비윤리적인 사건으로 기업의 명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환경일수록 윤리리스크를 평가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리리스크를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요?

A 기업의 경쟁 환경은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 또한 많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재무리스크와 비재무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으며 윤리리스크의 경우 비재무리스크로 분류하여 운영 등에 대한 리스크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스크는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큰 축이 될 수 있으며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윤리리스크 발생으로 인하여 기업의 명성이나 이미지, 더 나아가 존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영환경에서 윤리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요 윤리이슈와 윤리리스크를 도출하여 이에 대한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체 평가시스템을 만들어서 윤리리스크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는 원인 및 영향을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잠재적 윤리리스크를 빈도 및 임팩트에 따라 유형화하고 잠재위험도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전적 분석이 있어야 하고 이는 반드시 윤리 교육이나 감사와 연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윤리 및 감사리스크는 글로벌이슈이며 이를 기업의 주류 리스크의 일환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리스크는 비재무리스크 중 하나의 요소가 아니며, 윤리리스크 관리가 조직 전체의 사고방식에 내재되어 있어야 하고 경영활동에 있어서의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조직문화, 임직원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12월 국내외 행사를 소개합니다!

국 내

2013 제2차 기업 사회공헌 아카데미

사회공헌 사업의 아이템 발굴, 기획, 의사결정, 파트너 선정 등 사회공헌 사업 추진단계에 대하여, 사회공헌 사업 사례를 통해 소개할 예정

- 일시 : 2013년 12월 5일(목) 오후 2시
- 장소 : 전경련 신축회관 컨퍼런스센터

'2013 사회공헌 혁신 포럼' WINTER 사회공헌 세미나

한국 사회의 사회 공헌 현황과 전망, 기업 사회공헌 활동의 구체적 사례, 국내와 중국 현지의 사회공헌 활동 인식 조사가 소개될 예정

- 일시 : 2013년 12월 5일(목) 오후 3시-6시
- 장소 : 영등포문화예술회관

해 외

Bringing transparency to multi-tier supply chains

공급 체인[1)]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범 사례를 논의하고, 공급망 리스크 관리에 대한 최신 연구를 발표 할 예정

- 주최 : Sedex and GRI
- 일시 : 2013년 12월 4일(수)
- 장소 : London

Global Forum on Sustainability and Social Performance for the Oil & Gas and Mining Industries

에너지 업계 주요 관계자들이 모여 미래 산업에 대한 기대, 열정, 도전에 대해 공유하고, 기업, 정부 기관, 시민 단체, 학계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

- 주최 : Prospero Events Group
- 일시 : 2013년 12월 5일(목)~6일(금)
- 장소 : Amsterdam

1) 상품의 연쇄적인 생산 및 공급 과정

윤리경영 퀴즈

최근 세계 최대 온라인 소매업체인 아마존이 오프라인 서점과 손잡고 함께 살기 마케팅에 나섰다. 이와 같이 이해관계자와의 경쟁구도를 탈피하고 제휴 등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공유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상생경영 2) 투명경영
3) 책임경영 4) 윤리경영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 지난호 정답 : **3) 사회공헌 프로그램 성과지표**
- **정답 제출처**(25일 까지) : 국민권익위원회 기업윤리브리프스 담당자 문옥인(oim2821@kore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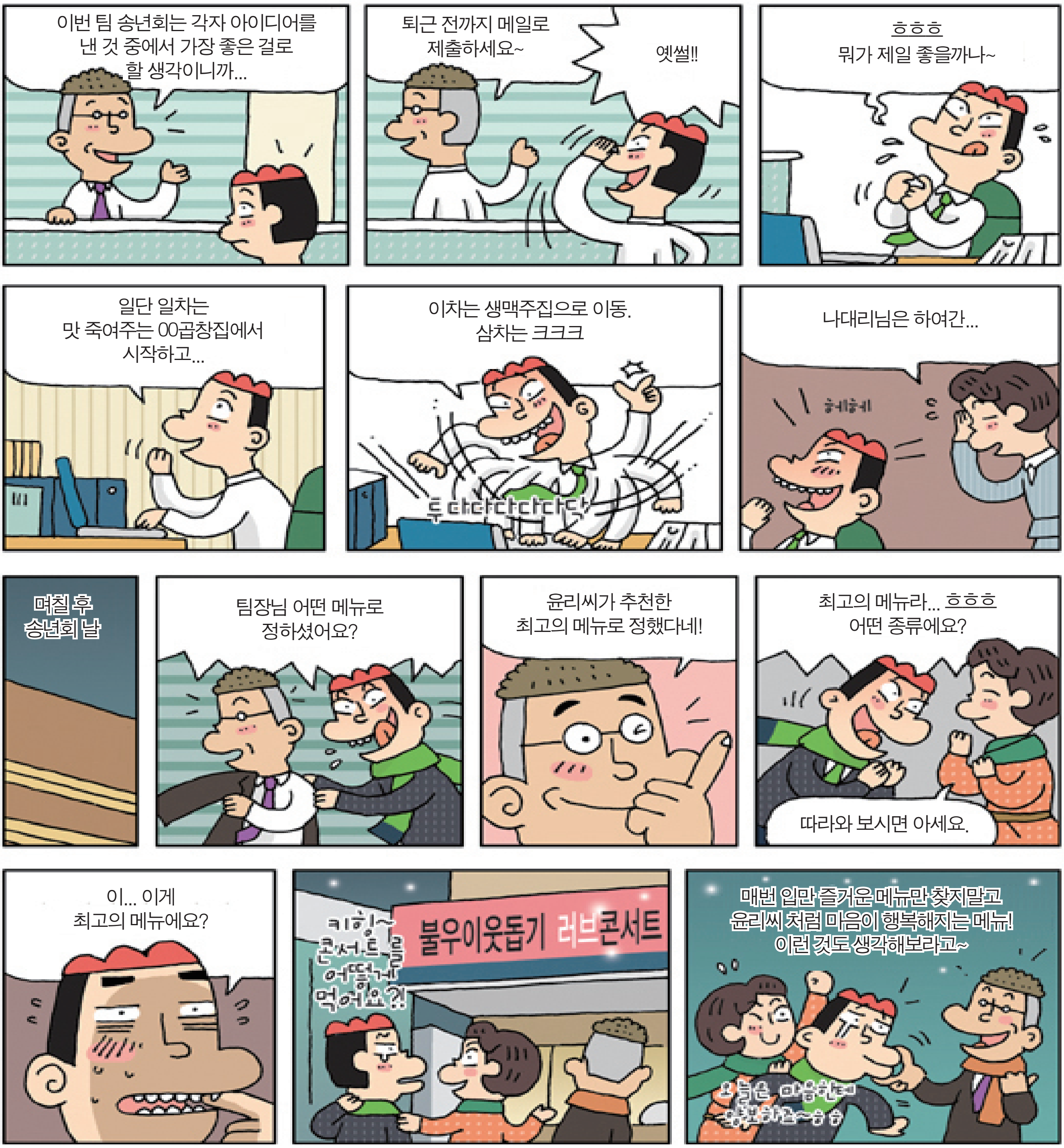
  ※ 정답과 함께 성함, 연락처, 주소(상품을 받아보실 수 있는 곳)를 적어 보내주십시오.
- 지난 호 퀴즈 정답자는 **박성균님, 박아름님, 백승범님, 김범준님, 반동명님**입니다.

  ※ 보내주신 주소로 상품권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Yes 준법! Ok 윤리!

최고의 메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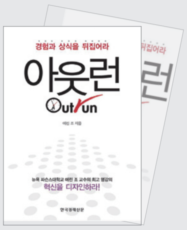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말하지 않으면 개선하지 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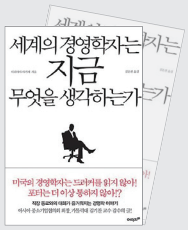
자료제공 : **교보생명** (그림 안종만)

새로운 책 소개

1. 이케아, 북유럽스타일 경영을 말하다
저자 : 앤더스 달빅
출판 : 한빛비즈
출판일 : 2013년 11월 11일
정가 : 15,000원



2. 아웃런
저자 : 에린 조
출판 : 한국경제신문사
출판일 : 2013년 11월 20일
정가 : 14,000원



3. 세계의 경영학자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가
저자 : 이리야마 아키에
출판 : 에이지21
출판일: 2013년 11월 27일
정가 : 15,000원

– 본 월간지의 저작권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있습니다.